

보도시점

2024. 11. 12.(화) 10:30

배포

2024. 11. 12.(화) 10:30

‘드론 활용’ 간척지 관리로 행정업무 전문성 강화

- 내년부터 시작되는 간척지 타작물 재배 전환, 드론으로 철저히 관리 -



한국농어촌공사는 국가관리 간척지 담당 직원 14명 모두가 ‘드론 조정 국가자격증’을 취득하여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내년부터 새만금, 영산강 등 국가가 관리하는 간척지의 다각적 활용 기반 구축을 위해서 신규 임대 간척지를 대상으로 타작물 재배 전환을 추진함에 따라, 공사는 드론을 활용한 간척지 관리로 불법 재배를 사전에 예방하고, 신속·효율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권진식 기금관리처장은 “공사는 국가관리 간척지 관리기관으로써 올해 드론 국가자격증취득과 비행훈련 기초과정을 시작으로, 간척지 현장 영상촬영기술, 전문 드론장비 비행 등 최첨단 드론 기술을 관리 전반에 활용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기금관리처	책임자	부 장	송영학 (061-338-5971)
	기금농지조성부	담당자	차 장	우성문 (061-338-5972)